

한일 경제 협력 새로운 방안 모색

전주상공회의소, '제14회 한일상공회의소 회장단회의' 참석... 경제 교류 현황 점검·교류 확대 의견 나뉨

전주상공회의소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4회 한일상공회의소 회장단회의'에 참석해 양국의 지역경제 협력 확대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일본상공회의소 대표단 등 양국 상의 회장단 3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회의는 '국교정상화 60년 기념,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함께 고민하다'를 주제로 진행되며 한일 경제 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됐다.

회의에서는 양국 지역 간 경제 교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특히 산업·관광·청년창업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교류 확대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기업



전주상공회의소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4회 한일상공회의소 회장단회의'에 참석해 양국의 지역경제 협력 확대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간 네트워크 강화, 인적 교류 활성화, 지역 단위의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 실질적 협력 방안도 제안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제경제 협력 활

동과 주요 사업 추진 사례를 공유하며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 속에서 지역 상의 간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양국의 우수 교류 사례를 선정

해 시상하며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 발굴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했다.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한일 지역경제 협력은 양국 모두의 성장 기회를 넓히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전주상의도 지역 기업들이 다양한 해외 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회장은 공식 회의에 앞서 8일 고베상공회의소 가와사키 히로야 회장과 별도 간담을 갖고 전주상의와 고베상의 간 향후 업무협약 체결 방안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지역 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확대와 협력 프로그램 추진의 필요성에 뜻을 함께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오상근 기자

20억원 규모 '상생소비복권' 당첨자 공개

중소벤처기업부·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5000명 상생페이백 누리집 통해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8일 오전 10시, '제2차 상생소비복권' 당첨 결과를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을 통해 발표했다 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온라인에서 직접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자에게는 별도로 알림톡이 발송된다. 상생소비복권은 전통시장과 소상공

인 매장에서의 카드 결제 실적을 기반으로 자동 응모되는 소비 진작 프로그램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된다. 당첨금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돼 다시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에서 사용되도록 설계된 '착한 소비 순환 구조'가 특징이다.

이번 2차 이벤트는 국가 단위 할인 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

간인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12일간 진행됐다. 1차 행사와 응모 방식은 동일하나 당첨자 수와 총 당첨금 규모를 대폭 확대해 마련됐다.

상생소비복권의 인기는 응모 수치에서도 확인된다. 이번 행사에는 1,107만 명이 참여해 총 6,373만 장의 복권이 발행됐다. 이는 국민 5명 중 1명이 응모한 셈으로, 소비 심리 회복과 내수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는 평가다.

당첨자에게는 12월 9일부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 순차 지급된다.(1등 20명: 각 2,000만 원, 2등 40명: 각 200만 원, 3등 1,140명: 각 100만 원, 4등 3,800명: 각 10만 원)

총 20억 원 규모의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1등 당첨자는 비수도권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매장에서 5만 원 이상 소비한 이력이 있는 응모자를 대상으로 공정한 방식으로 추첨했다. 수도권 거주자라도 행사 기간 동안 비수도권에서 소비 실적이 있으면 동일하게 대상에 포함된다.

/오상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의 지원을 받은 임실 섬진강다슬기마을이 해양수산부 주관 '2025년 어촌특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임실 섬진강다슬기마을 '대상'

어촌특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수상

전북특별자치도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전북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은 임실 섬진강다슬기마을이 해양수산부 주관 '2025년 어촌특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 경진대회는 어촌특화마을 간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공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지역 현안 해결 노력 △특화상품 개발 수준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마을을 선정한다.

임실 섬진강다슬기마을은 지역 대표 자원인 다슬기를 활용해 맑은국, 장조림, 된장소스 등 특화상품을 잇달아 개발하고, 자체 가공 시설을 구축해 금어기에도 안정적

인 소득 창출이 가능한 구조를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북어촌특화지원센터와 협력해 추진한 '다슬기 블록국' 상품화 사업은 전통 식재료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해 새로운 소비층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한 대표 사례로 꼽혔다.

전북어촌특화지원센터는 "각 어촌마을의 고유한 특성을 살린 발전 전략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특산물을 기반으로 한 상품 개발과 판로 확대를 적극 지원해 어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농촌진흥청, 돼지 암모니아 배출계수 4종 승인 완료

농촌진흥청은 국내 사육 환경을 반영해 새롭게 개발한 돼지 암모니아 배출계수 4종이 국가 통계 산정을 위한 공식 승인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국내 축산 현장의 변화와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가 암모니아 배출량 통계를 더욱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한 조치다.

암모니아(NH₃)는 대기 중에서 다른 물질과 결합해 초미세먼지(PM2.5)를 생성하는 주요 전구물질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물질로도 알려져 있다. 정확한 배출계수는 국가의 대기 질 개선 전략 수립, 국제 비교 통계 작성에 핵심 자료로 활용된다.

국립축산과학원은 2021년부터 국내 평균 사육두수, 축사 형태, 계절별 환

기 특성 등을 고려한 장기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21년 육성돈·비육돈 배출계수 개발 / 2024년 자돈·모돈 배출계수 개발을 완료하고, 기후에 따라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검증과 승인을 통과했다.

새 기준으로 국가 전체 암모니아 배출량을 다시 산정한 결과, 기존 통계 대비 국가 전체 배출량 13.5% 감소 / 농업 분야 17.2% 감소 / 축산 분야 18.7%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이번 승인으로 국가 통계 자료의 객관성·타당성·신뢰성이 강화되었으며, 향후 초미세먼지 저감 정책 수립에도 과학적 근거가 더욱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오상근기자

전주상공회의소, 연말정산 실무교육 개최

전주상공회의소는 8일 지역 기업들의 연말정산 업무 부담을 덜고 세무처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김경하 세무·노무사가 강사로 참여해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 사전 준비사항, 정산 마무리 절차 등 실무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근로소득의 범위, 비과세 항목 요건, 인적공제 및 세액공제 등 실제 업무에 직접 적용되는 세정 항목을 중심으로 심층 강의가 진행돼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전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번 실무교육이 회원 기업들이 개정된 제도 변화에 맞춰 연말정산 업무를 보다 정



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상공회의소는 매년 지역 기업의 세무·노무·회계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기업 경쟁력 제고와 최신 제도 변화 대응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설명회를 꾸준히 마련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전북은행-전북경찰청, 보이스포싱 예방 업무협약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금융사기 범죄로부터 지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

북경찰청과 보이스포싱 예방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보이스포싱 예방을 위한 정보 공유 및 간담회 개최 △합동 캠페인 등 홍보 협력 강화 △정책 발굴 및 제도 개선 시 시범운영 협업 △범죄 근절을 위한 제반 업무 연계 등 전방위적 공조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은행은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이미 다양한 시스템과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의심거래를 실시간 감시하는 전담 직원이 365일 상시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전 영업점에는 보이스포싱 대응 담당자를 배치해 신속한 고객 응대와 피해 차단에 힘쓰고 있다.

또한 전 직원 대상 실전 대응 교육,



지역 주민 대상 예방 홍보, 의심스러운 고액 인출 발생 시 112 신고 활성화 등 선제적 대응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전북은행은 2023년 13억 원, 2024년 14억 원, 2025년 11월 기준 29억 원 규모의 금융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 수사기관으로부터 감사장과 표창장을 수여받는 등 지역사회 금융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